



## 베네수엘라

# 차베스 복귀 후에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상존

2002년 4월 12일 군부 쿠데타로 축출되었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극적으로 권좌에 복귀한지 두 달이 지났으나, 베네수엘라 정국은 여전히 혼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베스는 복귀 후 반대파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및 경제개혁 정책을 표방하며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그 동안 누적된 불신과 지지기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책수단의 제약으로 정국 수습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자국의 원유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종전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동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차베스, 개혁보다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

차베스는 권좌 복귀 이후 재계, 노동계, 종교계 등 반대세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sup>1)</sup> 교회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주요 보직의 인사이동을 통하여 군부의 불만을 무마하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5월 30일 노브레가 신임 경제장관이 세계개혁안과 이자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랜 동안 누적된 정치적 불신으로 인해 재야 세력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차베스는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자신의 지지기반 유지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① 쿠바의 카스트로를 추종하는 외교노선, ② 언론탄압에 대한 국제인권위원회의 비난, ③ 군대를 사병화(私兵化)하려는 차베스의 시도에 대한 군부의 반발, ④ 여전히 높은 실업률, 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 등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측근 인사 임명, ⑥ 종교계 및 경제계와의 갈등 등이 이번 쿠데타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다.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한편, 정부내 좌파 성향의 각료들은 노브레가 경제장관의 경제개혁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재정수지 관리가 동국의 가장 주요한 경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에 우려감 고조

베네수엘라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01년 3.5%에서 2002년에는 4.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수지 개선대책이 없으면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6%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기위축으로 전반적인 세수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국의 주요 세원인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도 방만한 경영과 OPEC의 생산량 제한조치로 세수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정부의 선심성 지출은 거의 삭감되지 않고 있는데도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집단과 국영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내수 및 투자에 의존해 온 베네수엘라의 성장기반이 정국 불안으로 인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해외 자금조달이 경색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동국은 매년 약 50억 달러 정도의 대내외 채무를 차환

(roll-over)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이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자율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1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도 변수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도 정국 안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IMF 등 외부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베스는 집권 이후부터 사회주의 성향의 경제정책과 친쿠바 정책으로 미국을 자극해 왔으며, 지난해 9·11 테러 사태 이후에도 리비아와 이란을 방문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베스가 이번 군부 쿠데타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차베스의 권좌 복귀 이후 미국은 차베스와 반대파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대한 안정적 원유공급을 약속하는 등 유화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양측간의 불신이 단기間に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경제위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듯

현재 베네수엘라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베네수엘라産 원유의 국제가격 때문이다.<sup>2)</sup> 베네수엘라는 2002년 경제성장률이

2)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산 원유의 국제가격 18.5달러를 기준으로 2002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02년 5월 말 현재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국제가격은 23.53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 평균으로도 배럴당 약 2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금년 2월의 자유변  
동환율제 이행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물가  
상승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높은 국제유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의 확대와 일정 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에  
힘입어 동국은 급격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있으나, 국제유가의 추이에  
따라서는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은 베네수엘  
라의 현 상황을 양호한 대외유동성이 실물  
경제의 왜곡을 감추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베네  
수엘라 국채에 대한 가산금리의 스프레드  
가 확대되고 있다.

【裴祥旭】